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깊이 묵상하는 주일이 됩시다.

3. 2025년 정기 사무총회 공고

2024년 12월 29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정기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불참 시, <위임장 작성>해 헌금함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종강예배)

12월 17일(화) 오전 11시 아하브코업 종강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 복벽 성도와 함께 드리는 성탄예배

12월 17일(화) 오후 7시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교회 출발 - 5:30).

6. 목요 구역예배

근주 목요 구역예배는 임명순 사모 가정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금주 예배를 기점으로 2024년 구역예배는 종강하겠습니다. 다음 구역 예배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63, 다동 402호)

7.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8. 청소년 예배

근주 청소년 예배는 주일(12.15)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강민지 학생 : 중국 친척 방문 : 12/7(토) ~ 2/1(토), 약 2달 일정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9. 2025년도 달력 교부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11.1~12.1).

12/14일(토)-오동영 집사(-11.14) 12/27(금)-이은서 어린이
12/29일(일)-한성결 학생

찾아오시는 길 / 배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 기도

- 12/15 김혜숙 권사
- 12/22 박제연 집사
- 12/25 이광근 안집사
- 12/29 임명자 집사
- 12/30 이광근 안집사
- 2025/1/5 임명숙 집사
- 1/12 김혜숙 권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2/15	대림절 3주 / 사무총회 공고(1)
12/17	아하브 코업 정기모임 (종강예배) 복벽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12/22	대림절 4주 / 사무총회 공고(2)
12/25	성탄절 감사예배 (사례/성찬)
12/29	송년감사주일 / 제17차 사무총회 강/서지방회 송년 합창대회
12/31	송구영신예배 (밤 11:30~12:30)
01/01	산년맞이 감사예배
01/05	2025 산년 감사 주일 교회학교 등반예배
01/07	강/서지방회 산년 하례회
01/12	비전선포주일
01/14	지행회 서류제출 마감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탑동(10:00) ▶화서동(10:10) ▶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탑동(13:40) ▶화서동(13:50) ▶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50호 | 2024년 12월 15일
창립 2017.11.25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대림절 세 번째 주일 / 기쁨의 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인도: 집례자

※ 목 도 시 37:4, 35:9, 34:2, 속 2:10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518장 다 같 이
(기쁜 소식 들리니)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서교독 No.117 구주강림(3)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191장 다 같 이
(내가 매일 기쁘게)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기도교장님 아내)

성경봉독 이사야 61:1~3 (구약 1042) 김혜숙 권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서리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우 학생)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한성결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주정현금 : 김혜숙 문제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교회학교 : 이재우 이희희 이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김혜숙(삼방) 이광근(박제연(자녀) 임명자(삼방)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 이하브코업홈스쿨

성탄감사 : 한창수 오경자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한승훈임명순

건축헌금 : 한승훈임명순

후원헌금 : 새한교회, 무명(하루은행)

성 미 : 아가를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정 목사(예성)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후홈스쿨)  이재우(자녀)자녀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페도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캄피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아진은 선교사 안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안터클 파송 평안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훈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정국교체개선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선교학교
---	---	--	---	--

통일선교비전기도의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아모스 9:11~15 (구 1283)

말씀제목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빌립보서 4:4-9 (신 322)

말씀제목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임명자 집사 임명순 사모

성경봉독 왕상 16:29-34 (구 542)

대표기도 정애자 권사

말씀제목 경향과 순종의 살배의 맛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기복음 3:7-18 (신 92)

말씀제목 화제의 합당한 열매와 선물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15일일 일 9:1~15 무친 다윗의 장막을 재건

16일월 말 1:1~14 사랑은 은혜찬 공약이다

17일화 말 2:1~16 너희 마음에는 내가 없다

18일수 2:17-3:12 주께서 임하시면

19일목 3:13-4:6 종말에 우리가 보게 될 일

20일금 시 109:1~15 오직 기도할 뿐이다

21일토 109:16-31 뿌린대로 거둔다

22일일 시 110:1-7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⑥ 하나님은 유다를 부추겨서 반 앗수르 봉기를 일으킨 애굽과 구스의 멸망이 확실함을 알리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어떤 '상징행위', '표적행위'를 지시하나요?(사 20:2~3)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를 끄르고 네 발에서 ()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과 ()로 다니니라
- ⑦ 이 나라는 거짓과 속임수로 이웃 국가를 탐하고 잠시의 영화를 누리지만, 한 때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참혹해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 예언된 나라는?(사 21:9~10)
보소서 마방대가 쌍쌍이 오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직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 ⑧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갑자기 환호를 대국민적 환호를 일으킨 사건으로, 다들 구원과 해방의 기쁨에 들떠 소란하게 떠든다. 왜 앗수르의 군대가 갑자기 철수 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승리에만 도취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하나요?(사 22:12~14)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며 ()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⑨ 히스기야 왕 때의 최고 고위 관료로 히스기야를 도와 반 앗수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인물로 다윗 왕조의 묘실을 파괴하고 유다의 회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은?
(사 22:15~19)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말고 왕궁 맡은 자 ()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쫓아 내었도다
- ⑩ 앗수르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유다의 왕위를 잠시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환을 쓰지 않고 자기 가족을 챙기는데 남용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물은?(사 22:20~22)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50주 / 이사야 18장 ~ 22장

- 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로 책망하시는 국가로 아트바라(Atbara)강을 중심으로 청나일과 백나일 강을 가리키는 지역이며,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사 18:1)
슬프다 ()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며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 현재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 ② 이사야는 지금은 비록 구스가 징계를 받지만 장차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나요?(사 18:7)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에 이르리라
- ③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로 책망 받는 국가인데, 유다가 하나님보다 이곳을 의지했던 결과로 극심한 내부적 갈등과 분열(1~5),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파탄(5~10), 정치 지도자의 무능과 불능(11~15)으로 멸망 받게 되는 나라는?(사 19:1)
()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에 임하시리니 ()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도다
- ④ 이사야는 지금은 비록 애굽이 징계를 받지만 장차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나요?(사 19:20~22)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이자 ()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 ()하고 ()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 ⑤ 이사야는 애굽과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사 19:23~25)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 애굽이여, () 앗수르여, ()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24년
복讖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이 들려지고
내 입이 내 대적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흙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 사이에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동들이 여호와와 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삼상2:1-8)"

2024년 성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나가 오실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복讖 땅의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한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4년 12월 17일 저녁 7시 중현교회에 모여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예배에 초청합니다.

지금껏 혼자만 참여했다면 복讖 성도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가족,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평양에서"를 그들과 함께 외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녹음되어 복讖으로 송출되는 성탄 예배에
회중으로 평예찬양대로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12월 17일 저녁 7시 장소 | 중현교회(역삼동 소재)

문의 | 02)796-8846 모퉁이돌선교회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95	북조 바이사의 침입	왕상 15:17
찬송가	찬 254장	다 같이	895	제2차 남북조 전쟁	대하 16:1
대표기도		한승훈 목사	886	북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8
성경봉독	왕상 16:29~34	말은이	885	북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말씀인도	경청 순종의 실패	임명순 사모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합심기도		다 같이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헌금기도	찬 304장	말은이		엘라의 사역	왕상 17:1-24
주기도문		다 같이	872	남조 여호사밧의 등극	왕상 22:42

■ 들어가는 말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왕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28년을 다스린 예후 다음으로 길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바알은 <멜카르트>라는 두로의 주신으로, 구약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바알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신 하다드>와는 다른 신입니다. 바알 멜카르트 메소포타미아의 신으로, 저승 세계의 주인인 네르갈과 루에는 그리스 신 헤라클레스와 비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9세기 전 비르 하다드의 아람어 비문을 보면 멜카르트는 전사 신이지만, 그의 활동들에 대한 구약 시대의 신화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대의 문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으로 나타나는데, 불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리고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은 왕의 딸로서의 신분은 자기 민족의 신 바알 멜카르트의 <여대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부흥 속에서 꿈틀거리고 자라나는 영적 타락의 모습은 어떻게 진단하며 고쳐가야 할까요?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를 하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를 섬기긴 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의를 변경하는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것까지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남아 있던 여호와와 유일신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으며,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기둥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만들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아합은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섬긴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여호와 제의는 버리고 바알 제의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아합이 제사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를 바알신앙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뱀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이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터를 쌓으면서 그의 장자 아비람의 목숨을 대가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 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만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고 저주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수 6:26).

히엘은 장자를 잃고도 계속 해서 성을 짓느라고 막내아들까지 잃는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이야기 끝에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쓴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그들이 무시하면 이런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히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장벌을 받게 됩니다.

■ 결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경청과 순종의 실패’입니다. 돈과 권력에 물든 종교와 그 지도력은 영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충돌합니다. 아합 때에 이스라엘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알 숭배자 시돈 사람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하여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까지 만들어 숭배했으며,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내적으로 단 한 건의 모반도 없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번영하는 국제 관계에서도 안정된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례없이 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기억되던 여리고성 재건축과 관련한 여호수아의 경고가 무시 될 만큼 아합 시대는 왕과 백성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번영과 발전만이, 꼭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기본 골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영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